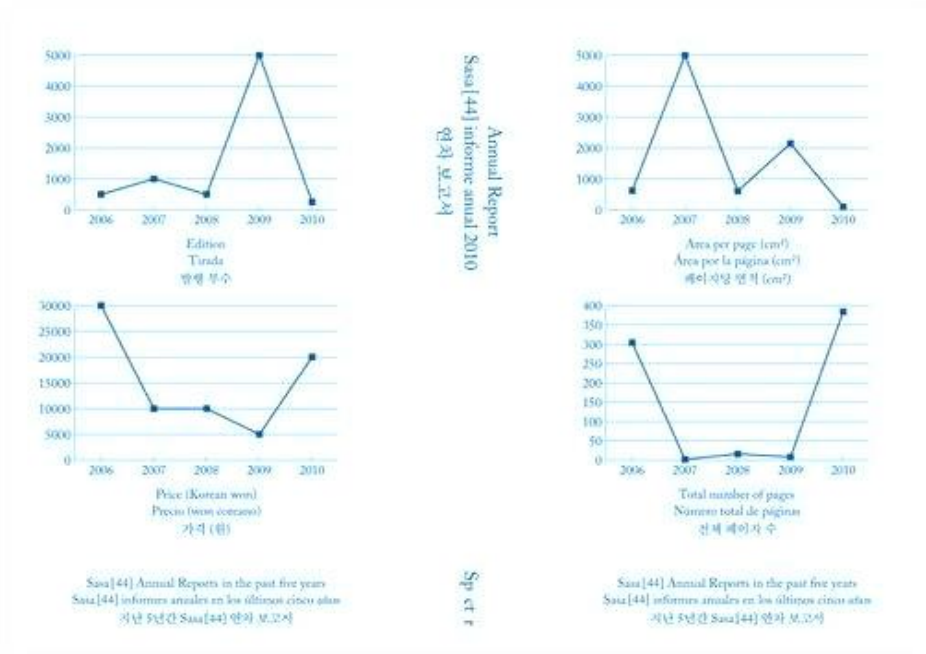


Sasa[44]의 기록 예술 - 《연례 보고》 연작

February, 2012 | 임근준 AKA 이정우(미술 디자인 평론가)

도판 1.



Sasa[44]
 <연차 보고서 2010(Annual Report 2010)>(의 앞·뒤표지)
 2011년
 12.6×7.8×1.8cm
 총383쪽
 에디션 250부

[임근준의 20·21세기 미술 걸작선: 온 카와라 VS Sasa[44]]
Sasa[44]의 기록 예술 - 《연례 보고》 연작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현대미술가 Sasa[44](1972-)는, 수집과 조사를 통해 얻은 특정 형태의 (재매개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상징형식으로 활용해왔다. 미적 미디어의 범주 내에서 스타일을 취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단순 정보의 나열처럼 보이기 쉽고, 따라서 "이런 것도 작품이야?"라는 식으로 심드렁하게 반응하는 관객이 적잖다.

작가는, 만화책·신문·위키피디아 따위에서 얻은 정보를 추려 이미지-오브제를 만들고, 각 이미지-오브제의 계정이 거느리는 메타-서사에 주목해, 각 서사가 상호 교차하도록 특정한 조합으로 배치·전시함으로써, (현)메시지의 공통된 선을 잡아낸다. 이런 동어 반복적 구조화의 방법은, 어찌 보면 제프 쿤스를 닮았다. 하지만, (대중이 쉬이 미술로 간주하는) 유희적 형상의 물신(物神)이 작업의 주요소로 동원되는 경우가 드물고, '비미술적 재료가 언어 변수에 의해 통제되며 종종 예상할 것 이상의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점에선, 개념미술 이래의 어떤 고단한 전통에 빚지고 있는 것처럼 보기도 한다.

게다가 그는, 타인과의 협업을 시도할 때도, 각 개인을 정보의 매트릭스로 간주하고, 각 매트릭스를 특정한 차원에서 중첩시킴으로써 어떤 개념적 페티시(fetish)를 발생시키려 노력한다. 양자 혹은 다자간에 피처링(ft.)이나 방법론의 매시업(mashup)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핵심은 한 인간을 데이터베이스로 간주해 특정 프로토콜로 유의미한 데이터의 중첩을 유도해내는 데에 있다. 그의 작업 가운데, 이런 특성이 가장 잘 도드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연례 보고(Annual Report)' 연작이다.

2006년의 활동 기록을 담은 <연례 보고 2006(Annual Report 2006)>은 이렇게 시작한다: "2006년 한 해 동안 Sasa[44]는 설렁탕을 52그릇, 자장면을 84그릇 먹었고, 교통카드를 235회 사용했고, 서울 시내 극장에서 영화를 220편 보았고, 교보문고에서 책을 258권 구입했고, 휴대전화로 1,063건의 전화를 걸었고, 각종 공공기관에서 총 196명이 먼저 용무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불일을 보았고, 출퇴근 기록기로 1,083건의 작업실 출입 기록을 얻어냈다."

책의 목차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설렁탕, 2. 자장면, 3. 교통, 4. 영화, 5. 책, 6. 통화, 7. 대기, 8. 출입.

통계 그래프로 시작하는 각 항목별 페이지를 가득 메운 것은, (설렁탕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장면 식사) 영수증 모음, 교통카드 사용내역, (개봉관) 영화 티켓, (교보문고에서 구매한) 도서 목록, 통화내역, 대기접수 번호표, (작업실을 방문한 모든 이의) 출입기록카드다.

(비고: 항목별 그래프를 보면, 3월과 9월에 그의 대중교통 이용량이 급증한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통화량이 가장 많았던 달은 8월이었다.)

반면, <연례 보고 2007(Annual Report 2007)>은 일곱 가지 항목의 그래프를 담은 접미식 포스터였다. 구성은 이랬다: 1. 2007년 Sasa[44]가 소비한 설렁(곰)탕 그릇 수 월별 집계, 2. 2007년 Sasa[44]가 관람한 영화 편수 월별 집계, 3. 2007년 Sasa[44]가 교보문고에서 구입한 도서 권수 월별 집계, 4. 2007년 Sasa[44]가 휴대전화로 건 통화 건수 월별 집계, 5. 2007년 Sasa[44]가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린 대기인 수 월별 집계 (대기표 집계 자료에 기초), 6. 2007년 Sasa[44]가 소비한 자장면 그릇 수 월별 집계, 7. 2007년 Sasa[44]의 교통카드 사용 횟수 월별 집계.

(비고: 2007-2008년 양해동안 작가는 영은미술관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당시엔 작업실 방문자가 거의 없었기에 따로 기록이 집계되지 않았다. / 2007년의 종합 그래프를 보면, 그의 활동 실적이 가장 좋은 달은 8월이었고, 4월과 5월에도 비교적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 반면, 2월과 6월은 슬럼프의 양상.)

결산 내역은 이렇다: "2007년 한 해 동안 Sasa[44]는 설렁(곰)탕을 245그릇, 자장면을 59그릇 먹었고, 교통카드를 164회 사용했고, 서울 시내 극장에서 영화를 58편 보았고, 교보문고에서 책을 602권 구입했고, 휴대전화로 1,381건의 전화를 걸었고, 각종 공공기관에서 총 164명이 먼저 용무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불일을 보았다."

중철 제본 소책자로 발간된 <연례 보고 2008(Annual Report 2008)>은, 일곱 항목의 월별 추이를 정사각형의 컬러 다이어그램으로 계량화했고, 이런 결산으로 마무리됐다: "2008년 한 해 동안 Sasa[44]는 설렁(곰)탕을 125그릇, 자장면을 75그릇 먹었고, 교통카드를 163회 사용했고, 서울 시내 극장에서 영화를 12편 보았고, 교보문고에서 책을 581권 구입했고, 휴대전화로 1,558건의 전화를 걸었고, 각종 공공기관에서 총 112명이 먼저 용무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불일을 보았다."

신문용지에 인쇄된 <연례 보고 2009(Annual Report 2009)>는, 당해 작가가 전시했던 각 도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한국어, 화란어, 체코어, 히브루어)로 동일한 활동내역을 반복하는 형식이었다.

'연례 보고' 발행 5주년을 기념해 도통한 미니 포켓북으로 제작된 <연차 보고서 2010(Annual Report 2010)>은, 당해 작가가 전시했던 세 언어권(영어, 스페인어, 한국어)의 글로 인쇄·제작됐다. 특색이라면, 앞표지와 뒤표지에 연도별 '연례 보고'의 페이지당 면적과 전체 페이지수, 발행부수와 가격을 비교한 그래프를 담았다는 것. 그리고, 책자의 마지막 네 페이지에 여덟 항목--설렁탕(곰탕), 자장면, 교통카드, 영화, 책, 전화 통화, 작업실 출입 기록, 대기인--의 연도별 추이를 정리한 종합 그래프를 실었다.

(비고: 설렁탕과 곰탕의 소비는, 하동관이 강남점과 강북점으로 나뉘기 직전인 2007년 정점을 찍었다. 개봉 영화 감상은 2006년 220편을 감상해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이후 급감, 2008년부터는 미미한 기록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0년 도서구매량이 크게 준 것은 교보문고 광화문점이 내부 수리 공사에 돌입했던 탓이고, 인터넷 뱅킹을 시작한 2009년부터는 대기접수 번호표를 발부받는 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 5년간의 '연례 보고'는 디자이너 듀오 슬기와 민과 이리저리 협업한 결과로, 출판사는 모두 스펙터(Specter)고, 모두 당해의 활동 정보를 특정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제시한다. '연례 보고' 연작은, 개인의 실존이 어떠한 자본주의 제도에 따라 유지되고 증빙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예술로 분류될 수 있다. 영수증과 카드 소비 내역 따위로 재현된 한 개인의 일 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연례 보고' 각 권은 작가의 일 년짜리 자화상으로 독해된다.

초상의 요체: '지난 5년 동안 Sasa[44]는, 설렁탕(곰탕)을 587 그릇 먹었고, 자장면을 341 그릇 먹었으며, 교통 카드를 852번 사용했고, 서울 시내 극장에서 영화를 306편 보았으며, 교보문고에서 책을 1,983권 샀고, 휴대 전화로 전화를 5,689통 걸었으며, 출퇴근 기록기로 작업실 출입 기록은 1,473건 얻었으며, 은행 등에서 대기인 577명 다음에 용무를 봤다.' ///